



참여와 설득을 위한 조정자

윤 가 현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필자의 전공 영역은 심리학 중에서도 발달심리학이다. '발달'이라는 용어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정신적 및 신체적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하는데,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발달심리학의 연구대상은 대부분 아동이나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까지 발달해 온 심리적 특성들이 성인기에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성인기 중기나 후기에 해당된 개인들에게서도 심리적 특성들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는 발달심리학의 연구영역도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시기까지 확장되면서 이 분야를 평생 발달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필자가 강의를 담당하는 평생 발달심리학 교과목들 중 하나는 본능이나 종족보존의 의무와 관련된 성(性) 행동의 변화를 다룬 "성 심리학"이다. 이 교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금년이 벌써 10년째이다. 처음 이러한 교과목이 소개될 당시에는 '어떻게 성적 욕구를 다루는 분야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나 교과목의 영역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조차도 한 시간 정도의 강의를 들어보고

나면 성에 대한 사고와 행동이 자신들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또 본 과목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분야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는 겸허한 자세까지 갖추어질 정도로 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폭 넓게 다룬다. 곧 이 과목은 생물학적 성숙에 따른 성행동의 변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생리학이나 의학, 신경과학 등의 내용을 다루며, 또 개인의 성욕 표출이 사회적인 욕구와 부합되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법학 등의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다룬다. 그러나 강의의 성격은 단순히 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각 주제들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어떤 것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가 등을 토론하면서 지금까지 간직한 자신의 지식체계나 사고의 수준을 다시 정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을 바라보는 세인들의 태도는 수백 년의 기간을 토대로 비교할 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금세기 중반 이후의 성에 대한 태도 변화는 과거의 어느 시대와 비교하더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는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불과 수년 전의 수강생들과 근래의 수

강생들 간의 수강신청 동기나 자세 등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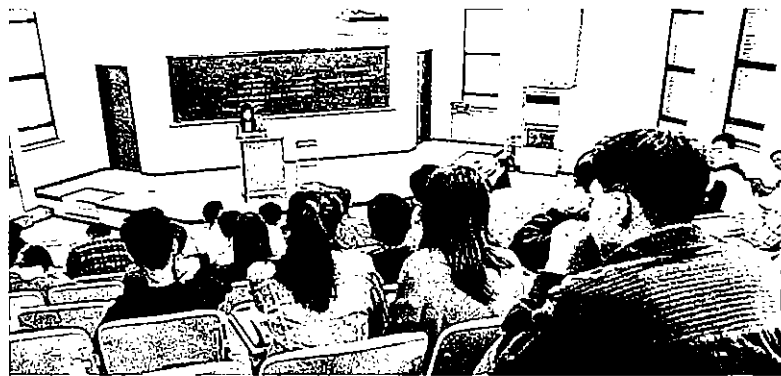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성 심리학의 수강신청은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위주로 제한하였는데, 당시에는 타 전공 학생들의 수강신청 허용은 과장하여 표현하면 하늘에 별을 딸 정도로 어려웠다. 새벽 일찍이 수강신청을 위하여 줄을 서고 기다렸는데도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학생들이 꽤 많았다.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 수강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강신청 동기는 강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했던 주요한 동기가 자신의 시간표가 맞아서 또는 일반선택의 학점을 채워야 하니까 등으로 답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치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스스로 수강신청서를 조작하여 수강하다가 학점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근래에는 꼭 듣고 싶었다는 동기를 밝히는 수강생들이 늘었고, 또 최근 이 교과목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교양 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수강신청의 문제점은 사라졌다.

요즘 학생들의 수강태도는 몇 년 전의 학생들의 수강 태도에 비하여 훨씬 더 적극적이다. 과거에는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으며, 또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남학생들이었다. 그래서 강사가 토론 참여를 권유할 때 비로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어나서 남을 의식한 채로 몇 마디 의견을 말하고 앉아 버리거나, 앞에서 얘기한 학생과 비슷한 생각이라면서 말을 끝내버리는 학생들이 많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은 혹시라도 강사가 자신에게 의견을 물어오면 어찌나 하고 걱정하는 눈빛을 보이기도 했다. 즉, 당시에는 일부 학생들이 교정적으로 토의에 참여하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남녀를 막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학생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여 발표를 원하는 학생들의 수를 제한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또 전에는 교과서도 수업시간 이외에 깊숙이 숨겨 가지고 다닌 학생들도 많았지만, 성을 바라보는 태도가 매우 달라진 요즘에는 타인의 눈초리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

강의 진행 방식

- 우선 매시간 강의를 시작할 때 전 시간에 다룬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고서 당일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언급한다(참고로 이 교과목은 일주일에 75분 수업을 두 차례 진행하는 3학점짜리이다).
- 또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이전에 시간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지른 종이를 나누어준다.
- 간혹 강의 주제 자체가 학생들의 토론으로 곧바로 이어지기에 민감한 내용들일 경우에는 나누어준 종이에 자신의 의견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고 나서 강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주제들에 대한 의견, 질문 등은 강의가 바로 끝나기 2~3분 전에 적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토의가 활발히 진행된 경우에는 나누어진 종이는 단순히 출석점검에 이용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견이나 질문을 적었을 경우 다음 강의시간의 초두에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전달해준다.
- 매시간 강의를 끝내기 몇 분 전에는 오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의 내용을 한 문장



정도로 소개한다.

- 토론 유도: 한 학기를 기준으로 강의 초기 단계, 즉 강의개시로부터 2주일 정도는 토론을 유도하지 않고 강사가 주로 내용을 전달한다. 질문이나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이 시기에는 자제하도록 요구하면서 강의 내용을 특정한 주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성을 이해하는 배경을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셋째 주부터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러한 강의 형태를 학기 말까지 지속시킨다.
- 시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수업은 매학기 2회 정도 진행한다. 성에 관련된 토크쇼나 드라마, 슬라이드 사진을 곁들이면서 해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학기마다 자료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강사에게는 이러한 강의 준비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잡지나 신문, 교과서 등에 소개된 각종 사진이나 그림들을 모아두면 나중에 슬라이드 사진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외부 강사 초빙: 매학기 1~2회 정도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진행한다. 타학과나 타대학의 교수 또는 성에 관련된 사회활동 종사자들이 강의를 맡도록 하며, 필자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학습의 효과는 초빙 강사가 학생들의 부모님 또래이든지, 젊은 분이든지 연령에 상관 없이 학생들에게는 늘 만나는 담당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선함을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매학기 고정적인 강사를 초빙하기는 쉽지 않다. 매번 학교측에서 공식적으로 강사에게 사례금을 지불해줄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강사에게 사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서류 등의 잡다한 일들이 많이 생기므로 되도록 봉사 차원에서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신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가 나름대로 공을

들여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을 들여 강사를 섭외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공을 들인다는 말은 필자 자신도 그러한 보답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학생 토의: 학기 중 2~3 차례는 미리 선정된 학생들이 5분 이내에 먼저 자기 의견들을 발표하도록 하고 나서 토론을 진행한다. 그 경우 발표자들에게는 토의 주제에 따라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고의 폭을 깊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조화시켜 쉽게 중용을 선택하는 것보다 한쪽의 입장을 위주로 생각해 보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결국 본인의 입장을 한층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토의주제가 결정되면 발표를 원하는 신청자들이 몰리게 되는데, 그 수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토의주제에 대하여 발표하는 날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사의 역할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때 타인을 의식하다보면 발표할 내용을 논리적으로나 문법적으로 가다듬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 집착하게 되면 대부분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의 핵심이 부각되지 못하거나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주제의 성격이 너무 예민하여 토의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자신의 성 경험에 관한 내용을 토론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역시 주제의 예민성과는 상관 없이 타인에게 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다소 무겁게 여기는 학생들도 있다. 그들은 특히 학기초에 자신도 의견을 언젠가 발표해야 한다는 데 갈등을 느끼고 다소 걱정스럽고 초조하게 시간을 보낸

다. 발표가 곧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 시간부터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생길 때 문장의 구성이나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평소의 어투로 표현하도록 요청한다. 또 학생들이 개진한 의견이나 질문의 내용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토론 참여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내용 자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격려해 준다. 결국 강사의 격려에 따라 강의 분위기가 편해지면 학생들의 강의 참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활발해진다.

강사는 역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강사 본인의 의견도 제시하면서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발표자들의 이견과 대비시킨다. 물론 이러한 대비과정에서 강사나 발표자, 청취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사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제시될 때마다 왜 다른가의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는 자세를 취하면서 반론을 제기해 보고, 또 타인과 생각이 일치할 때 단순하게 이에 동의하는 것보다도 나의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타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청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어보면서 학생들은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거부감이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게 되고 또 사고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 곧 강사는 학생들이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정자(moderator)**의 역할을 위주로 한다.

이 과목의 주된 목적은 성을 바라보는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또 성의 개념 자체를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인데, 이는 바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존재하는가의 차원에서부터 문제를 바라보게 만든다 (예,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이중기준의 존재). 곧 인간의 **차별을 타파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전개된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인간 차별의 기저

가 동서양 유사하게 지난 수십 세기 동안 남녀간의 차별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또 남녀의 차별의식이 연령이나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로 연결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차별의식을 없애는 주요한 방법은 현실성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곧 성 심리학의 강의 목표는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과 달리, 설득을 통하여 인간차별의식을 타파시키면서 인간의 존재가치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이란 단순히 혼자서 교과서를 읽으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토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설득의 효과는 높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강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수업을 통하여 사고의 변화가 나타나므로 결석을 하지 않는 학기가 되도록 권한다. 결석을 자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학기초부터 여러 차례 전달한다.

강의를 할 때나 토론이 전개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바로 학생들의 연령차로 인해 사고나 경험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1학년생과 4학년생은 3년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성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수준이 매우 다를 수 있다. 하물며 남학생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학년생과 병역의무를 마친 4학년생 간의 차이가 여학생들보다 더 크다. 경험의 차이에 따른 사고나 태도 수준이 크게 다르므로 강의나 토론의 내용이 1학년생이나 4학년생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수업 평가

학기말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따르면, 특히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방식에 대하여 자신들

의 경험과 너무나 다르다고 평가한다. 또 이 강의를 한 시간이라도 청강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교수들도 비슷한 의견을 전달한다.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강의를 이끌어 나가려면 강사가 무척 부지런해야 한다. 강의 시간이 끝날 때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어떤 의견을 적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전반적인 반응은 어떻고, 어떤 특수한 반응들이 나타났는가 그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조교가 이러한 일을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점의 평가방식은 다른 교과목과 비교하여 매우 다르다. 시험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과목들보다 매우 낮은 반면, 출석을 포함한 강의 참여도의 점수가 매우 높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강의계획서를 나누어줄 때 자세하게 전달하며, 혹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기초 수차례 인식시킨다. 우선 **시험의 비중**은 전체의 40~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험에 응시할 때 교과서 등을 참고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만 교과서 등을 정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혀 참고자료가 되지 못하도록 많은 문제를 출제한다.

전체 성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과제물은 주로 **현장 조사**에 해당된다. 이는 면접을 통해서 실제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가 어느 부분에서 위선적인가 아니면 진실한가, 또는 그들이 경험한 행동의 내용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가 아니면 특수한 것인가 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역시 타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는 면접 시도과정에서 자신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면접의 기술도 터득하게 되므로 도서관에서 작성하는 과제물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매춘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유를 적어오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하고, 찾은 다음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한

다. 면접은 대부분 비구조적(unstructured) 또는 반구조적(semi-structured) 형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출석을 포함하여 **수업에 대한 참여의 비중**이 전체 성적의 40~50%를 차지한다. 필자는 몇 해 전 모 주간신문에 휴강이 없는 교수로 평가되기도 할 정도로 휴강을 하지 않는다. 본 과목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라면 혼자서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목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이며, 이는 지속적인 수업 참여로 인하여 나타난다. 때로는 타인이나 강사의 의견에 반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을 당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사고의 폭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감점을 받게 되며, 감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대형 강좌이기 때문에 출석을 부를 수 없는 대신 매시간 질문이나 의견을 적어내는 종이 출석 확인에 이용되며, 이러한 작업은 조교가 도와준다. 그리고 매시간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정한 점수의 보너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실도 역시 학기초부터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준다. **☞**

윤기현

전남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이학석사 및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방문교수를 지냈고 현재 전남대 심리학과 학과장, 한겨레 21 「문학속의 성」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성 심리학」, 「남자들은 모두 미쳤어요: 한반도내 성폭력 실상」, 「심리학의 이해」, 「동성애의 심리학」, 「성문화의 심리」 등을 발표하였다.